

12월의 공연



보헤미안 예술가들의 꿈과 사랑 G. Puccini <라 보엠 La Bohème>

12월의 오페라 스테디셀러가 돌아온다. 추운 겨울날, 가난한 연인들의 애가 <라 보엠>은 진한 감성과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젊은 시절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찬란하고 애잔한 삶의 순간을 되돌아보게 한다. 앙리 뒤르제의 소설 <보헤미안들의 인생풍경>을 바탕으로 작곡된 전 4막의 오페라로 19세기 파리, 꿈과

환상을 갈망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삶을 그리며, 주옥같은 아리아의 선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푸치니의 대표작이다. 작곡가 푸치니는 실제로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 밀라노에서 다락방 생활을 하며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친구들이 있어 불행하지만은 않았다.

파리 어느 뒷골목 가난한 연인의 애잔한 사랑이야기는 푸치니 음악의 화려하고 감성적인 선율과 풍부한 시적 정서, 색채감 있는 관현악이 파리 보헤미안 예술가들의 사랑과 우



정이라는 드라마적인 소재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토스카>,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으로 불리며, ‘내 이름은 미미 Mi Chiamano Mimi’, ‘그대의 찬 손 Che Gelida Manina’, ‘오! 아름다운 아가씨 O soave fanciula’ 등 아리아로 초연 이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라보엠>은 프랑코 제피렐리 사단이 낳은 연출가 마르코 간디니가 연출한 국립오페라단 대표 레퍼토리로 2012년 초연 이후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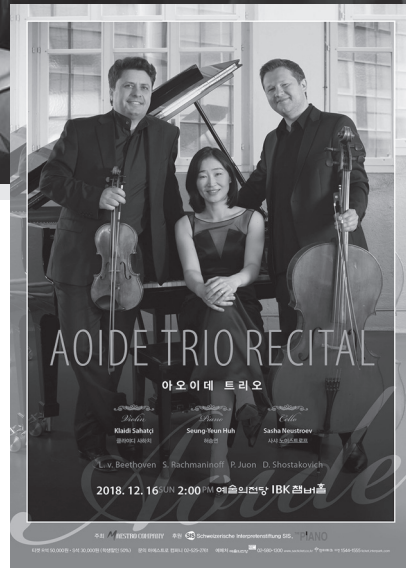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겨울 무대에서는 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연출로 여성 지휘자 성시연의 지휘가 만난다. 가장 빛나는 삶의 순간, 그 설렘과 애잔함을 노래할 주인공 미미와 로돌포 역은 소프라노 이리나 룡구와 서선영, 테너 정호윤과 이원종이 맡는다. 변덕스러운 커플 마르첼로와 무제타 역으로는 바리톤 이동환과 최병혁, 소프라노 강혜명과 장유리가 합류하여 젊은 보헤미안 감성이 진하게 묻어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12.6-7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AOIDE TRIO Recital
아오이데 트리오 리사이틀

아오이데 트리오(AOIDE TRIO)는 국제 음악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며 여러 음악학교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세 음악가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라는 모토로 2016년에 결성한 실내악단이다. 이들은 창단과 동시에 취리히 톤할레의 대표적인 앙상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 유수의 언론과 평론가들도 이들에 대해, 보기 드문 응집력과 아름다운 음색을 바탕으로 한 참신한 해석과 신선한 연주로써 청중에게 행복을 주는 최고의 트리오로 호평하고 있다. 따뜻한 카리스마로 최고의 연주를 펼치는 AOIDE TRIO가 올해 연말에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중후하고 화려한 베토벤, 그윽한 깊이의 선율로 감동을 더하는 라흐마니토프, 러시아 풍의 스위스 작곡가 유온, 충격적인 화음의 쇼스타코비치로 최고의 레퍼토리를 구성했다. AOIDE TRIO의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사운드와 정교한 앙상블이 천상의 음악을 지상에서 구현할 것이다.

12.16 2pm.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이달의 추천 공연



대전챔버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윤동주와 슈베르트」
2018.12.11.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루빈스타인 국제콩쿠르 우승자
안나 페도로바 피아노 리사이틀
2018.12.7. 성남 티엘아이 아트센터

이달의 전시회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스페인 화가 에바 알머슨의 세계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로 유화, 관화, 드로잉, 대형 오브제 등 그녀의 초기작부터 서울을 주제로 한 최근 작품까지 총 150 여점이 전시된다. 홈(home)이라는 주제로 8개의 방(room)으로 구성해 작가의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화풍으로 그려진 소소한 일상을 담는다. 10년 전 우연히 한국을 방문해 인연을 이어온 그녀의 공정으로 가득 찬 그림들을 통해 특별함을 공감하게 한다.

12.7-2019.3.31.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